SUMMA
Seoyoung Industrial Development / Seoyoung Engineering

경기신문

kgnews.co.kr

2023년 6월 2일 금요일 단기 4356년 (음력 4월 14일)

대표전화 031)2688-114 제5478호

경기주택도시공사
도민과 함께 기회를 만드는
기회 파트너 GH

수요 증가하는 위탁보호, 가족상담, 재활서비스

보완 필요성 꾸준히 제기

[기획] ② 갈길 먼 발달장애인 정책… 개선 방향은?

경기도, 도내 발달장애인 4000명 실태조사 통해 정부사업 추진에 박차

정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분야를 교육, 의료, 생활 등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정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위탁보호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재활서비스에 대한 보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관련 사업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시간 동안 위탁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인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주간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취미·여가 등 자조활동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자조활동을 할 수 있는 위탁보호시설이 마련돼있지 않다.

발달장애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가족상담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위탁대행하고 있는데, 상담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소득을 기준을 따져 신청 자격이 제한적이다.

뇌병변을 앓는 발달장애인들이 근육 경직, 사지 마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물리치료 등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경우 방문 형태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보험 수가 적용 대상도 아니다.

이로 인해 자부담으로 방문 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방문 재활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재활을 받기 위해 한 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부담하는 가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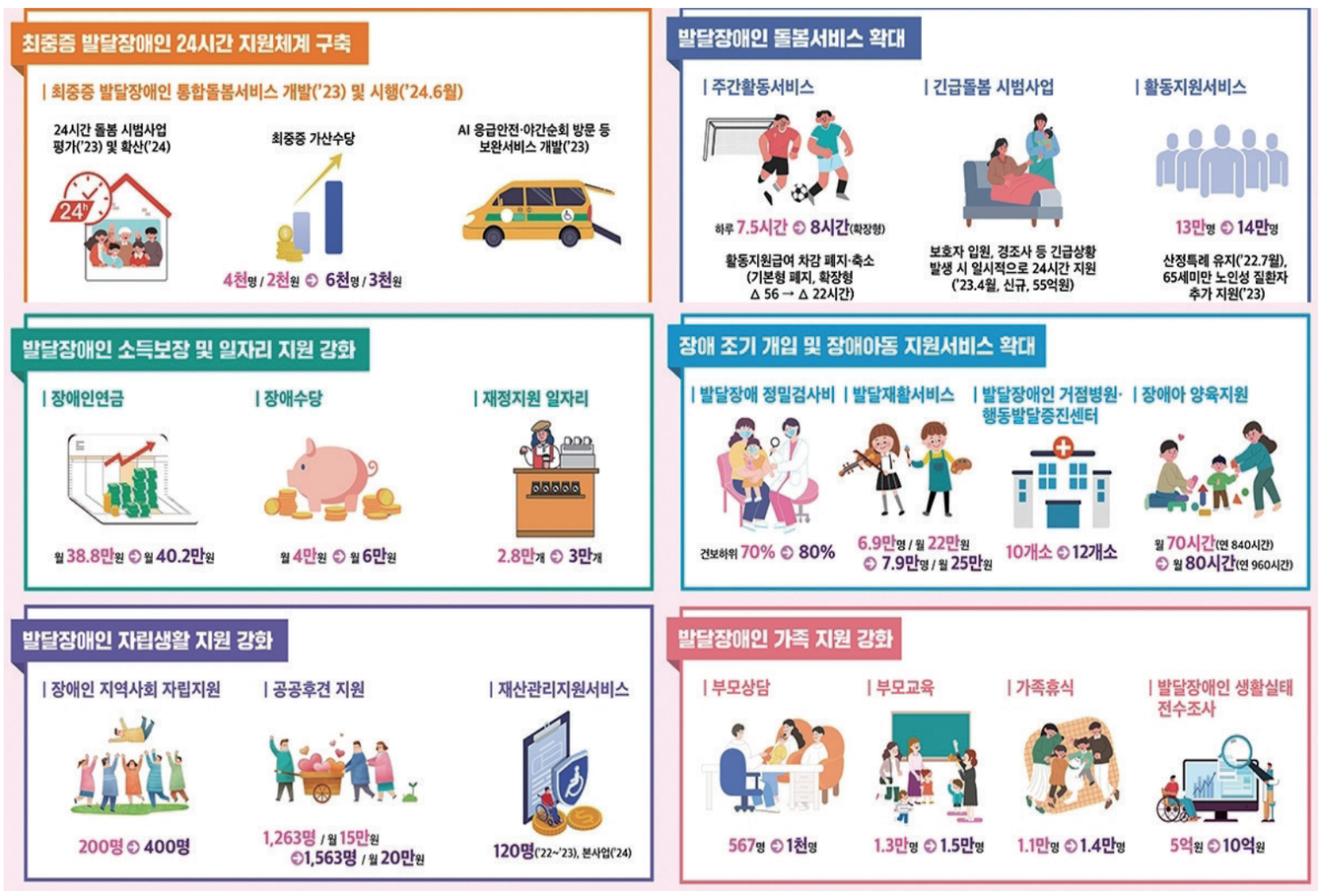
김원호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뇌병변을 앓는 발달장애인 대부분은 몸이 굳는 걸 방지하기 위해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 병원이 부족하고, 관련 지원 서비스도 없어 지인들에게 수소문해 관련 병원을 찾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억 원을 들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에는 발달장애인 25%에 해당하는 약 5만 8000명이 거주하고 있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

도는 돌봄 사업에 투입될 발달장애인 1명당 비용을 1억 5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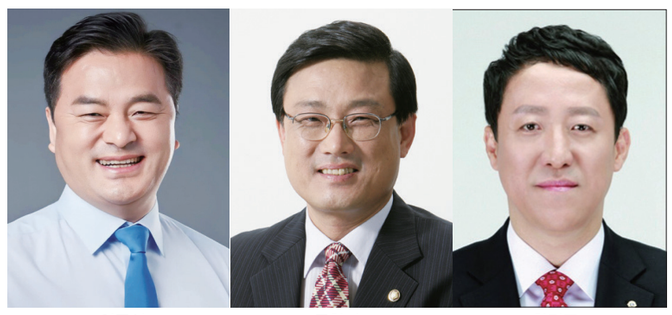
나규항 기자



보건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제공

2024 4·10 총선을 뛰는 사람들 — 광주시 을

예측 불가…민주당·국민의힘 '백중지세'



임종성 국회의원 | 문학진 전 국회의원 | 황명주 당협위원장

광주시 을은 광주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20대 총선부터 갑과 을로 분할됐다. 읍면으로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이 포함된 갑 선거구보다 민주당 지지세가 더 강하다. 이는 최근 들어 오포, 초월읍에 아파트 및 원룸 단지가 늘어나면서 청장년층 인구가 증가한 것이 요인이다. 특히 오포읍이 분당 옆에 위치해 분당, 판교, 강남 출퇴근을 하면서 저렴한 집을 찾으려고 오는 젊은 외지인들이 많다. 하지만 초월읍과 곤지암읍, 도척면에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오포마저도 부촌 빌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보수 성향도 나오고 있다.

▲ 민주당, 임종성 의원 vs 문학진 전 의원 '공천 경쟁'

임종성(57) 현 국회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선다. 광주 토박이로 부친도 광주에서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가천대 실내건축학과를 졸업했다. 2019년 5월,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정성호 의원, 김병욱 의원 등과 함께 7인회로 분류될만큼 대표적인 이재명계로 꼽힌다.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선거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문학진(68) 전 국회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얼굴 없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존재를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 17, 18대 하남시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1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정무특보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최근 지역의 대소사에 얼굴을 비치며 지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국민의힘, 황명주 위원장 '총선 출마 의지 확고'

황명주(50)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 출신으로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원 행정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선거 출마 예측이 많았으나 불출마를 선언하고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유승민 예비후보 캠프인 희망22에서 활동했다.

오석균 기자

'경기도교육청 학평 성적 유출' 주범은 10대 해커

작년 고등학생 신분 5개월 간 도교육청 서버 200회 침입 자료 탈취 혐의

서버 취약점 발견해 실력 과시 목적으로 유포…범행 관련자 9명 모두 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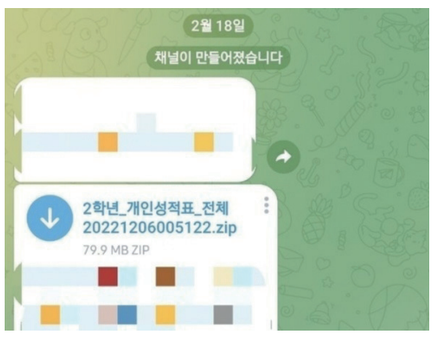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해킹 주범은 10대 대학생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무단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학력평가에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자료를 탈취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날 오후 10시 30분쯤 자료 27만여 건을 수험정보 공유 텔레그램 채팅방인 '핑프방'에 유포했다.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던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간 200여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해 성적 등 각종 자료를 내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18일 텔레그램에서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가 유출됐다. 사진=텔레그램 캡쳐

A씨는 지난해 도교육청 서버 취약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이 궁금해 범행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B씨에게 자료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파일의 유출경로와 도교육청 서버 기록을 분석해 A씨를 추적해 지난달 23일 검거했다. 이로써 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한 3명, 유출된 성적 정보를 유포한 B씨 등 2명, 이를 재유포한 2명, 성적 정보를 판매하려 한 1명 등 관련 인물 9명을 모두 붙잡고, A씨와 B씨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거나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재가공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며 "중대 해킹 범죄는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진석 기자

토·일요일자 신문 쉽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
"국가 암검진" 꼭 받으세요

한국인 사망원인 1위가 뭔지 암?
*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 입니다.
* 상당수의 암은 초기에 자각증상이 거의 없으며, 증상이 느껴질 때에는 이미 치료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암검진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낄 때 미리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올해 암검진 대상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40세 이상	50세 이상	40세 이상 (여성)	20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고위험군)	만 54~74세 (고위험군)
2년주기	매년	2년주기	2년주기	6개월주기	2년주기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 세포검사	복부초음파 +혈액검사	저선량 흉부CT

* 2년주기 검진은 올해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검진이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어플 *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h·well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